

과제 수행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 어머니의 대응 반응, 아동의 자기 조절간의 관계

송하나* 최경숙
성균관대학교 인재개발학과

본 연구는 과제 수행 상황에서 아동이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대응 반응의 유형을 알아보고 이러한 대응 반응들이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동 발달 종단 연구에 참여한 중산층 가정의 만 6세 아동과 어머니 62쌍이 실험실을 방문하여 받아쓰기 과제를 수행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관찰된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들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두 명의 코더가 아동의 정서 반응과 어머니의 대응 반응 유형에 따라 평정하였다. 개인차가 큰 과제 수행 시간을 통제된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이 과제 수행 동안 정적 정서를 보일 때 어머니도 정적 정서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아동의 부적 정서에는 지시하기 같은 통제적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화내기는 과제 상황에서 아동의 자기 조절을 저해하였던 반면, 아무런 정서를 보이지 않은 중립 반응과 웃음은 자기 조절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 외에 어머니의 대응 반응 중 격려하기가 아동의 자기 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행 시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본 결과 평균 정도의 수행 시간을 소요한 집단에서만 어머니의 격려와 아동의 자기 조절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였다. 이는 아동과 어머니의 상호 작용이 수행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개인별 능력차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후속 연구에서 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받아쓰기 과제, 아동의 정서, 어머니 반응, 자기 조절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은 성공적 사회관계 뿐 아니라 인지적 학습 및 학교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정란, 양옥승, 2003; Eisenberg, Fabes, Shepard, Murphy, Guthrie, Jones

Friedman, Poulin, & Maszk, 1997; Neizel, & Stright, 2004).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의 자기 조절 능력은 상위 인지가 발달하는 중기 아동기 이후에 나타나지만, 더 어린 유아기에도 외적

* 교신저자: 송하나, E-mail: jni4ever@skku.edu

요구나 만족을 위해 행동을 억제하는 조절 능력이 현저히 증가한다(안주혜, 최경숙, 1989; Kopp, 1982). 따라서 유아기의 자기 조절 능력을 이후 학령기에 요구되는 다양한 과제의 수행의 성공을 예측하는 지표로 보기도 한다.

자기 조절이란 개념은 행동적 조절, 내적 조절, 정서 조절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자기 통제, 자기 억제, 자기 관리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Kochanska, Murray, Jacques, Koenig, & Vcabdergest, 1996; Kopp, 1982). 하지만 보다 간단히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 조절은 단순한 행동의 억제 뿐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책략 사용이나 인내력, 타인의 지시에 따르는 순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Freund, 1990; Kochanska & Aksan, 1995).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의 자기 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들 중에서, 아동 내적 요인으로 연령, 기질, 외적 언어 발달, 인지 능력 등을 들 수 있으며 아동 외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영향력과 과제의 난이도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긴 어린 아동일수록 다른 외적 요인들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아동이 보이는 행동에 대해 “하지 마”, “잘했어” 등의 피드백을 끊임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영아나 어린 유아의 경우 부모의 피드백은 외적이면서 다소 비자발적인 행동 통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어린 아동의 자기 조절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크게 사회화와 비계설정(scaffolding)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사회화의 측면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규준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아동이 이를 통해 자기조절 규칙을 내재화 시킨다는 것이다(Kochanska & Aksan, 1995; Koenig,

Cicchetti, & Rogosch, 2000; Lewis & Saarni, 1985). 즉, 아동이 사회화를 통해 사회적 규준을 습득하면 표현해야 할 행동과 통제해야 할 행동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 자기 조절이 발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영·유아와, 학년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관련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양육태도가 자기 조절 능력의 발달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반면(Winsler, Diaz, McCarthy, Atencio, & Chabay, 1999), 간섭이 심하고 처벌적인 양육 태도는 아동의 충동성, 불순응, 주의 결핍 등 조절 능력 부재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Clark, Kochanska, & Ready, 2000). 특히 하지영과 박성연(2005)의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거부적 양육 태도가 자기 조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여아보다 현저하였다. 그러나 양육태도가 자기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카메룬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친밀하고 의존적인 양육 태도가 아동의 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그리스 집단에서는 독립성을 강조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 조절 발달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ller, Yovsi, Borke, Kartner, Jensen, & Papaligoura, 2004).

또한 부모의 정서 관련 행동에 대한 연구들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 표현이 각각 딸과 아들의 정서 조절에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유은희, 임미옥, 2006) 어머니가 일관성 없는 부적 정서 표현성을 많이 보일수록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사용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hipman, & Zeman, 2001). 또한 부모가 아동의 부적 정서에 대해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반응을 많이 보일수록 화를 잘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이와 유사하게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방안을 생각하도록 돕는 부모의 정서 코칭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ttman, Katz, & Hoover, 1996). 이 외에 부모-자녀 간 애착은 아동의 조절 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다. 이와 같이, 부모의 정서 관련행동들은 언어, 표정, 행동을 통해 아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서를 해석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서적 경험이 많을수록 타인의 의도와 상황적 단서를 잘 해석하게 되고 아동이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회화 측면에서는 정서 조절에 대한 부모의 영향을 논의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두 번째 비계설정 측면은 정서 조절 보다는 인지적 과제 수행에서의 자기조절과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한다. 비계설정은 아동이 성인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학습하여 보다 상위의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어린 아동의 경우 부모는 인지적 과제 해결을 돕는 유의한 주체이다. Vygotsky가 문제 해결 상황에서 부모와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동 인지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Freund, 1990; Mulvaney, McCartney, Bub, & Marshall, 2006).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비계설정은 아동이 과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적용된다. 아동이 어려움이나 지루함으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는 동기를 불어넣거나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도움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부모의 비계설정이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아동의 수준에 맞는 비계설정을 제공하는 것과 효율적인 방법으로 비계설정을 전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수준보다 많이 벗어나거나 혹은 지나치게 쉬운 것보다 아동의 현재 발달 수준보다 약간 높을 때 부모의 교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Mulvaney, et al., 2006). 이에 더하여 비계설정이 아동에게 협력적이고 상호적인 방식으로 전달되면 과제를 지속하려는 아동의 동기를 높여 자기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모가 무작정 지시를 하지 않고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움을 제공해야 아동의 과제 수행에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지나치게 지시적이거나 일방적인 경우 아동의 수행이 도리어 방해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Neizel, & Stright, 2004). 성희용, 방희정과 이순행의 연구(2005)에서는 어머니가 유아의 수행에 대해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정서적 지지 행동을 많이 보일 때 유아의 순응성과 과제 수행 동기가 가장 높았다.

또한 컴퓨터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충분히 문제 해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을 아동에 맞추어 잘 조절하는 것이 과제 수행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다(Nader-Grosbois, Normandeu, & Quintal, 2008). 반대로, 칭찬을 잘 하지 않으면서 강압적인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어머니의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주의결핍과 충동성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insler et al.,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과제 수행하는데서 상호 교류적인 비계설정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너무 일방적이고 아동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긍정적인 부모의 행동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아동의 자기 조절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에게서 아동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러나 성희용 등 (2005)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양방향적 관점에서 아동의 행동이 어머니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아동이 어머니의 도움을 간섭으로 인식하고 화를 내며 격렬하게 저항할 때 어머니가 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정서는 타인의 행동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Bretherton, Fritz, Zahn-Waxler, & Ridgeway, 1986) 아동의 정서에 따라 어머니가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아동의 정서적 기질에 따라 어머니 정서 표현의 빈도가 달라지는 것(송하나, 2006)이 그 예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아동이 과제 통제 능력을 잃고 부정적 정서를 보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이 과제의 수행을 지속하는 자기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더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자기조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지만, 또한 매개변인으로의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어머니가 단호한 방식으로 주장을 강요하는 행동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적 반응지향성이 자기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Kochanska, Aksan, Prisco, & Adams, 2008) 본 연구에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가지는 직접적 효과와 매개 효과를 같이 살펴야 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과제수행에서 아동의 정서에 따라 어머니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그 차이를 설명하려 하였다. 둘째로 아동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대응 반응이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대응

반응의 매개효과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려 하였다.

이에 더하여 부모의 행동이 상황 특수적이며 문화 특수적이라는 것은 여러 학자들(Dixon, LeVine, Richman, & Brazelton, 1984; Eisenberg, & Fabes, 1994; Eisenberg et al., 1998)이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고려한 연구들은 실제 많지 않다. 과제 수행 상황은 어머니가 아동을 재촉하거나 위로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일상적 행동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실제로 아무리 수용적이고 민주적인 어머니라도 아동의 숙제를 돕거나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호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제 수행 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 행동을 자기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과제 수행을 위한 실험실을 구성하고 직접 관찰을 통해 아동과 어머니 행동을 평가하여 더 타당한 정보를 얻으려 하였다. 아동의 정서, 어머니의 대응 반응, 아동의 자기조절 간의 직접 및 매개적 관계를 살펴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제 수행에서 아동의 정서와 어머니의 대응 반응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과제 수행에서 아동의 정서와 자기조절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대응반응은 아동의 정서와 자기조절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강남 및 잠실에 소재한 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6세 유아 62명(남아 37명, 여아 25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전에 만 4,

5세 아동 백여 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발달 종단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일차년도에 이어 아동이 만 6세가 된 이차년도 연구에 66쌍이 다시 참여하였다. 그 중 과제를 다 마치지 못하고 탈락한 아동과 쓰기 능력의 개인차로 인해 수행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극단치를 제외하고 남은 62쌍의 자료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아동들은 모두 양부모 중산층 가정의 아동들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었고 성별 연령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본 연구는 아동과 어머니가 실험실을 방문하여 받아쓰기 과제를 수행한 것을 관찰한 연구이다.

관찰 실험실 구성

실험실은 송과구에 위치한 유치원의 빈 교실에 구성되었다. 실험실의 한 가운데 책상과 의자를 마주 보게 배치하고 책상 위에 연필들과 지우개, 연필 깎기, 수행할 받아쓰기 과제의 견본을 놓아두었다. 아동과 어머니의 행동을 녹화하기 위해 교실 구석을 두꺼운 안막 커튼으로 가려서 연구자와 보조자들이 있을 공간을 마련하였다. 안막의 안쪽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3대와 증폭기를 설치하고 마이크는 눈에 띄지 않도록 천정에 설치하였다. 또한 책상과 조금 떨어진 교실 바닥에 아동이 볼 수 있도록 장난감을 배치하고 과제 종료 후 놀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 상황

모자 상호작용을 관찰하기 위해 아동에게 받아쓰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글짓기나 산수 문제 풀이 과제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유치원에 다니는 학령전

기 아동임을 고려하여 글짓기보다는 좀 더 쉬운 받아쓰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내의 아동들은 취학 전에 한글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어 받아쓰기 과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였다.

아동과 어머니가 책상에 마주보고 앉게 한 후 30자 정도의 견본을 제시하고 아동에게 받아쓰게 하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10자 정도의 문장 4개를 만들게 하고 견본의 받아쓰기가 끝난 후 이것들을 아동에게 차례로 제시하여 모두 받아쓰게 하였다. 어머니들이 짧은 문장을 만들고 아동에게 받아쓰게 하는 상황은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아동의 과제나 학습을 지도하는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과제의 난이도를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대로 자기 조절과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결정적이다. 따라서 ‘맑’과 같은 이중 받침이나 ‘좋’ ‘젯’다 등 받침이 있는 글자를 골고루 배치하여 너무 쉽지 않게 견본을 구성하고 아동발달심리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하였다.

아동이 받아쓰기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이름을 쓰라고 지시하거나 오타를 지워주는 등 자유롭게 아동의 받아쓰기를 돕도록 하였으나 아동을 대신하여 글자를 써주는 것은 금지하였다. 과제 수행은 견본과 어머니가 만든 4문장을 모두 받아쓸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과제 소요 시간은 평균 20분 내외였으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과제를 다 마치지 못하거나 다른 아동보다 3배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 아동이 있었는데 이런 극단적 사례는 이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과제 수행 상황을 보여준다.

행동 분석 준거

녹화된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다음과 같이 4분 할된 화면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에서 아동발달을 전공하는 두 명의 대학원생이 분석하였다. 이 대학원



그림 1. 아동이 받아쓰기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

생들은 실험 절차에 대해 전혀 정보가 없었으며 본 연구자에 의해 훈련받았다. 전체 수행시간을 20초 간격의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마다 목표한 행동이 나타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주고 전체를 합하여 변인마다 개인 점수를 구하였다. 개인점수가 수행시간인 단위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 점수의 범위는 제시하지 않았다. 연구 변인들에 대한 평정의 코더 간 신뢰도는 전체 피험자의 20%인 13케이스에 대해 구하여졌는데 kappa가 모두 .89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의 행동 분석 준거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정서 반응

아동이 과제 수행을 하는 동안 나타내는 얼굴표정, 행동, 언어, 억양 등을 고려하여 웃음, 화, 슬픔, 중립의 네 가지 정서를 구분하였다. 웃음은 크게 웃는 것과 작게 미소 짓는 것을 모두 포함하며 화는 “하기 싫어” 하며 과제에 대해 강하게 짜증을 내거나 항의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화와는 달리 지루함을 포함하며 눈물을 글썽이거나 “나 못하겠어” “자꾸 틀리잖아” 등 자신의 수행에 좌절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슬픔으로 보았다. 또한 어떤 특정 정서를 나타내지 않는 담담한 표정을 중립으로 코딩하였는데 굳이 중립을 설정한 것은 부모가 아동이

정서적 반응 없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중단할 때에도 대응 행동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부모 행동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제시한 대로 단위마다 각각의 정서가 나타나면 1점씩을 주었다.

2) 부모의 대응 반응

아동이 보이는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사전에 반응 영역을 미리 정하지 않고 관찰된 반응에 기초하여 귀납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선행 연구들(Cicirelli, 1976; Fish, 1999; Kochanska, & Aksan, 1995; Mulvaney et al., 2006)은 과제수행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행동을 크게 언어적 vs 비언어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에서 효율성이나 자율성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 부류와 부정적 부류로 나누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6가지 유형(지시, 간섭, 격려, 도움주기, 정적 정서표현, 무시)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도 “너 그거 잘하면 엄마가 OO 사 줄게” 하는 등 무조건적 강화 반응(bribe)도 몇 차례 나타났으나 빈도가 너무 낮아 제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받아쓰기 과제와 관련된 어머니의 행동만을 고려하였으며 과제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하거나(e.g., 아동의 옷, 아침에 일어났던 일) 어머니 혼자 보이는 행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는 아동이 과제 수행을 중단하고 있을 때 “어서 해” “빨리 해” “여기부터 써” 하고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는 아동의 글쓰기를 빨리 진행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동으로 본다. 반면, ‘간섭’은 어머니가 강제로 아이의 손을 잡고 쓰는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간섭을 주로 비언어적인 반응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어떤 것을 도와주려는 시도가 의도와

는 반대로 아이의 수행을 방해할 때나 아이가 수행을 잘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런 저런 지시를 하여 아동에게 부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간섭에 해당한다. 또한 어머니가 아이 대신 자신이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아동의 자율적 수행을 저해하는 간섭으로 보았다.

‘격려’는 아동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아동의 정서에 공감하고 위로하거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으로 보았다. “자 조금만 더 하자” “그거 다 하면 이제 재미있는 거 할 거야” 등 본 연구에서는 주로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도움주기’는 받아쓰기 과제 수행에 대해 행동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우개로 틀린 것을 지워주거나 글자를 쓰기 쉽도록 종이를 잡아주는 행동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아동이 거부하는데도 계속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도움이 아니라 간섭으로 코딩하였다. ‘정적 정서표현’은 비언어적 행동으로 격려나 도움의 요소 없이 아동에게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보이는 행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무시’는 아동이 받아쓰기에 어려움을 보이거나 과제를 중단하는데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부모의 최소화 반응으로 보았다. 6가지 유형이 단위마다 나타나면 각각 1점을 주었다.

3) 아동의 자기 조절

아동의 자기 조절은 과제 수행동안 나타낸 스트레스 반응에 기초하여 평가하였다. 20초 간격으로 나는 각 단위동안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를 0-4점으로 평정하였다. 한 단위 내내 화를 내고 어머니를 공격하거나 과제를 집어던지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4점, 과제 수행을 중단하고 있지만 4보다 약한 반응일 때는 3점, 과제를 때때로 중단하거나 서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언어로 호소하지만 다시 과제 수행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2점, 꼭 “해

야 돼?” 등의 질문을 반복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만 (e.g., 한숨을 쉬는 것) 과제 수행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1점, 눈에 띄는 스트레스 반응 없이 때때로 미소가 나타나고 순조롭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코딩하였다.

연구 절차와 자료 처리

연구원이 실험실을 방문한 어머니와 아동에게 실험과정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실험 세팅으로 안내한 후 어머니와 아동이 마주보게 앉도록 하고 아동에게는 과제를 다 끝내면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대로 어머니에게 받아쓰기 문장을 만들도록 하고 아동의 수행을 도울 수 있지만 대신 써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였다. 연구원이 나가고 난 뒤 아동이 연필을 쥐는 순간부터 과제를 마치고 연필을 놓은 시점까지 시간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우선 각 변인별로 평균, 표준 편차 등의 기술치를 제시한 후 아동의 성별 차이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아동의 정서반응과 어머니의 대응 반응, 아동의 조절간의 상대적 관계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 별로 상관분석과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개인차가 컸기 때문에 수행시간을 통제 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처리에는 SPSS version 12.0이 사용되었다.

결 과

연구 변인들의 기술치 분석

연구 문제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변인들의 특성을 기술치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아에 비해 남아의 수가 현저히 많았으므로, 예측치 못한 성차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개별적 변인에 대한 성차도 함께 살펴보았다. 표 1에 각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남아, 여아, 전체 아동별로 나타나 있다.

표에 제시된 대로 아동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평균 20여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제를 완수하는 시간에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 변인들의 표준편차가 큰 패턴을 보인다. 이런 개인차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아동의 과제 수행 시간은 이후 모든 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고려되었다.

표 1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과제수행동안 아동들이 화나 슬픔 등의 부적 정서보다는 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했으며 어머니들은 도움주기 행동을 가장 많이 보였다. 격려하기와 정적 정서 표현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아동의 수행을 방해하는 간섭이나 무시하기 등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이렇게 부정적 반응보다 긍정적 반응을 많이 보인 이유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다는 아동들이 과제 수행에서 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머니의 대응반응도 주로 긍정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변인들에 대해 성차를 살펴본 결과 수행시간($t=3.10,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수행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 조절($t=2.36, p<.05$) 및 어머니의 지시($t=2.46, p<.05$)와 도움 주기($t=2.72, p<.01$)에서도 성차가 유의하였으나 남아가 오랜 시간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관련 변인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피기 위해 아동의 성을 더미코딩하고 수행 시간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연구 변인들 전체와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 아동의 수행시간, 정서반응과 어머니의 대응 반응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들	남아 (n=37)		여아 (n=25)		전체 (n=62)		
	M	SD	M	SD	M	SD	
수행 시간	22.47	8.33	16.87	5.89	20.21	7.9	
아 동	웃음	15.92	16.56	9.4	9.35	13.29	14.37
	슬픔	1.86	6.59	.84	2.25	1.45	5.28
	화	2.89	9.61	.28	1.21	1.84	7.54
	중립	44.76	18.98	36.56	14.52	41.45	17.66
자기 조절	231.32	92.44	181.68	60.59	211.31	84.20	
어 머 니	지시	4.54	5.08	2.04	2.89	3.53	4.48
	간섭	.86	1.55	.56	1.61	.74	1.57
	격려	6.32	7.15	3.16	5.07	5.05	6.54
	도움 주기	36.81	22.94	22.48	15.64	31.03	21.38
	무시	.14	.54	.12	.44	.13	.50
정적 정서	6.03	6.46	4.28	4.25	5.32	5.7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아와 여아의 차이는 수행시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행시간을 통제하면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연구문제 분석: 아동의 정서와 어머니의 대응 반응, 아동의 자기 조절간의 관계

아동의 정서, 어머니의 대응 반응, 그리고 아동의 자기 조절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시간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부분 상관 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인 수에 비해 피험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파워 문제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체 변인을 한꺼번에 회귀 분석하지 않고 상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1) 아동의 정서반응과 어머니 대응반응과의 관계

표 2에 따르면, 아동의 웃음은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r=.5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인, 간섭과($r=-.42, p<.01$) 유의한 부적 상관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제수행 시 아동이 웃음을 보일 때 어머니 역시 웃음으로 대응하고 간섭을 덜 하였음을 제시한다. 아동의 슬픔 반응은 어머니의 지시($r=.33, p<.05$) 및 격려($r=.30, p<.05$)와 정적 상관인 유의하였으며, 아동의 화 역시 어머니의 지시와 정적 상관인 유의하였다. 아동이 부적정서를 많이 보일수록 어머니가 과제 수행을 진행하기 위해 지시를 많이 하였으나 슬픔의 반응에는 지시와 더불어 격려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이 정서반응 없는 중립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한 경우, 어머니는 지시하기($r=-.31, p<.05$)나 정적 정서표현($r=-.43, p<.01$) 반응은 덜 나타낸 반면 간섭하기($r=.41, p<.01$)를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은 두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변인 간 영향력의 크기가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이 각각의 정서를 보인 후에 어머니가 주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알아보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아동의 정서 반응을 예측변인으로, 어머니 대응 반응을 준거변인으로 한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은 과제 수행시간을 통제하는 위계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맨 처음 단계에서 통제 변인인 과제수행시간이, 다음 단계에서는 아동의 정서 반응 각각이 투입되었다. 설명력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R^2_{ch} 값과 그 유의도는 통제변인(과제수행시간)을 제외하고 나서 첨가된 변인(아동의 정서반응)의 기여도를 보여준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3에 나타나있다.

표 3은 상관분석에서 나타난 유의한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회귀 분석이 모두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아동의 정적 정서나 중립 상태는 어머니의 정서 정서표현을 이끌어낸 반면, 아동의 부적 정서에는 어머니가 통제적 행동인 지시하기를 주로 보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동의 중립 상황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아동의 정서반응, 어머니의 대응 반응, 아동의 자기조절 간의 상관관계 ($n=62$)

변인	1	2	3	4	5	6	7	8	9	10
[아동 정서반응]										
1.웃음										
2.슬픔	-.22									
3.화	-.21	.78***								
4.중립	-.65***	-.35**	-.32*							
[어머니 대응반응]										
5.지시	.12	.33*	.28*	-.31*						
6.간섭	-.42**	.17	.11	.41**	-.08					
7.격려	.01	.30*	.13	-.23	.20	.09				
8.도움주기	.07	.24	.19	-.09	.06	.34**	.13			
9.무시	.15	-.01	-.02	-.12	-.10	-.14	-.15	-.06		
10.정적 정서표현	.56***	-.05	-.02	-.43**	.12	-.23	.33	.06	.10	
11.아동자기조절	.26*	-.50***	-.66***	.25	-.13	-.03	-.33*	.12	.01	.05

통제변인: 아동의 과제수행시간

* $p<.05$ ** $p<.01$ *** $p<.001$

표 3. 어머니의 대응반응에 미치는 아동의 정서 반응 각각의 영향력 ($n=62$)

예측변인	준거변인	Beta	t	R^2_{ch}		
웃음	간접	-.49	-3.58	.15**		
	[회귀모델: $R^2=.32$ $F=13.65^{***}$]					
	정적정서표현	.56	5.16	.20***		
	[회귀모델: $R^2=.56$ $F=37.27^{***}$]					
슬픔	지시	.23	2.64	.05*		
	[회귀모델: $R^2=.59$ $F=42.96^{***}$]					
	격려	.26	2.46	.06*		
	[회귀모델: $R^2=.40$ $F=19.23^{***}$]					
화	지시	.20	2.28	.04*		
	[회귀모델: $R^2=.58$ $F=41.03^{***}$]					
	중립	지시	-.26	-2.55	.05*	
		[회귀모델: $R^2=.59$ $F=42.44^{***}$]				
간접		.46	3.49	.14**		
[회귀모델: $R^2=.31$ $F=13.27^{***}$]						
정적정서표현				-.42	-3.65	.12**
[회귀모델: $R^2=.48$ $F=26.90^{***}$]						

1단계 통제변인: 아동의 과제수행시간

* $p<.05$ ** $p<.01$ *** $p<.001$

2) 아동의 정서반응과 자기 조절과의 관계

표 2에서 수행시간을 통제하였을 때 아동의 자기 조절은 아동의 웃음과는 정적 상관($r=.26$, $p<.05$)이, 슬픔($r=-.50$, $p<.001$) 및 화($r=-.66$, $p<.001$)와는 부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을 바탕으로 아동의 정서들이 자기조절 능력을 설명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다중회귀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상관분석과는 달리, 수행시간의 영향력을 제외하고 나서 중립반응($Beta=.22$, $p<.05$)이 자기 조절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나 슬픔의 영향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정서반응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n=62$)

예측변인	준거변인	Beta	t	R^2_{ch}
웃음	자기조절	.24	2.91**	.09***
슬픔		.09	1.31	
화		-.25	-3.84***	
중립		.22	2.61*	
[최종 회귀모델: $R^2=.92$ $F=123.09^{***}$]				

1단계 통제변인: 아동의 과제수행시간

* $p<.05$ ** $p<.01$ *** $p<.001$

3) 아동의 정서반응과 자기조절과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대응반응의 매개 효과

앞서 아동의 정서 반응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궁극적 관심은 어머니의 대응 반응이 이 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매개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 외에 매개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가 유의해야 한다. 표 2의 상관 분석에서 어머니의 대응반응 중 격려만이 자기조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r=-.33$, $p<.05$). 어머니의 격려는 또한 아동이 슬픔을 보일수록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동의 슬픔, 어머니의 격려, 아동의 자기 조절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5). 매개효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격려를 통제하였을 때 슬픔과 자기조절간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거나 유의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한다.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수행 시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격려, 마지막 단계에서 아동의 슬픔이 투입되었다. 표 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수행시간과 격려의 영향을 제외하고 난 뒤 아동의 슬픔은 자기 조절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_{ch}=.03$, $p<.001$) 매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 단지, 아동의 슬픔과 어머니의 격려반응은 모두

표 5. 어머니의 격려의 매개효과 검증 (n=62)

예측변인	준거변인	Beta	t	R ² _{ch}
수행시간	자기조절	1.03	18.20***	.83***
격려		-.10	-1.68	.02*
슬픔		-.19	-3.75***	.03***

[회귀모델: R²=.88 F=138.51***]

1단계 통제변인: 아동의 과제수행시간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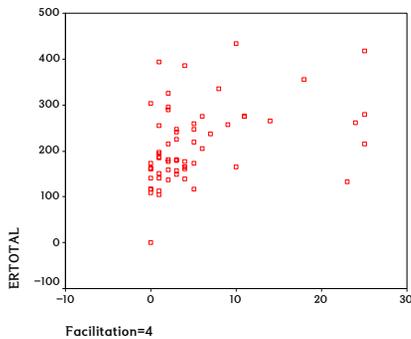


그림 2. 어머니 격려와 아동 자기 조절간의 산포도

아동의 자기 조절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적으로 아동 슬픔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시간의 차이에 따른 어머니 격려와 아동의 자기조절간의 관계에 대한 부가적 분석

위에서 어머니의 격려가 아동의 자기조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선행 연구들이나 이론적 개념과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의 회귀분석은 과제 수행 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고 아동과 어머니 행동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수행 시간은 아동 및 어머니 행동의 많은 부분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

기 때문에 어머니의 격려와 아동의 자기 조절간의 관계도 수행시간에 의한 영향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후속 분석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격려와 아동의 자기 조절간의 상관에 대한 산포도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그림 2의 산포도를 보면 어머니의 격려와 아동의 자기조절 관계가 어느 수준까지 정적 관계를 보이는 듯 하다가 중간 정도부터 관련성이 모호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형 상관 계수 하나로 두 변인들을 설명하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격려 점수는 수행 시간에 비례하므로 수행 시간에 따라 세 집단(10여분 이내로 수행 시간이 짧은 집단, 20여분 정도의 평균 시간을 소요한 집단, 평균시간을 초과한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서 격려와 자기 조절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특히, 평균 시간을 초과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과제 수행에서 오는 시간적 지루함, 어려움, 그리고 부모의 빈번한 반응 등으로 인해 과제 수행 스트레스가 높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집단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린 집단과 평균적으로 걸린 집단에서는 격려와 자기 조절 간에 모두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평균보다 시간을 오래 소요한 집단에서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적인 시간이 소요된 집단에서의 상관만이 유의하였다($r=.55, p<.05$). 즉 과제 수행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 어머니의 격려와 자기 조절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과제 수행에서 보이는 정서 반응과 이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그리고 아동

의 자기 조절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특히, 어머니의 반응이 자기 조절에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는지 아니면 정서와 자기조절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였다. 상관분석결과, 부모의 반응 중 격려만이 아동의 정서 중 슬픔 및 자기 조절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격려에 대한 매개효과만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아동이 어떤 특정 정서를 보일 때 부모가 더 유의하게 많이 나타내는 대응 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웃음을 보일 때 부모가 이에 웃음으로 응수 하였으며 슬픔이나 화를 표현할 때는 과제를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지시하기를 주로 보였다. 이러한 부분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긍정-긍정, 부정-과제수행 지향 반응으로 매치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또한 아동이 과제 수행 중에 좌절하거나 슬퍼하는 반응을 나타낼수록 부모가 격려를 많이 하였으며 답답한 중립 상황에서도 부모가 지시하기, 간섭하기, 정적 정서 표현 등의 대응 반응을 다양하게 나타내었다. 중립에 대한 결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많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의 정서적 반응성은 어머니와의 정서적 상호 작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Eisenberg, et al., 1998; Martini, Root, & Jenkins, 2004). 웃음-웃음 반응은 부모와 아동사이에 상호적 정서 일치성 및 효율성을 제시하는 반면, 아동이 부정 정서를 더 자주 표현할수록 부모가 더 통제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었다(Prinz, Onghena, Hellinckx, Grietens, Ghesquiere, & Colpin, 2004). 그러나 화와는 달리 슬픔은 대인 관계에서 공감이나 위로를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Bretherton, et al., 1986;

Eisenberg, et al., 1998) 본 연구에서 부모의 격려와 관련성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지시하기는 아동이 문제를 직시하고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수동적으로 이것저것 지시에 따르도록 요구하는 행동이다. 비계설정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 반응이나 또한 앞서 지정한 대로 중립에 대한 부모의 일방적 반응 역시 비효율적이고 통제적인 측면이 있다.

강압적 통제 전략이 자기 조절과 과제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Nader-Grosbois, et al., 2008; Neizel & Stright, 2004)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반응들과 자기조절간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이 부정 정서를 보일 때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기 조절 능력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지 간단히 논의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는 부모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에 대한 40여개의 선행 연구를 메타 분석한 Karreman와 동료들(Karreman, van Yuij, van Aken, & Dekovic, 2006)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vs. 부정적 통제 유형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 크기가 작았는데 두 가지 통제유형 모두 아동의 순응성과는 관련이 있었던 반면 자기 조절에 대해서는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 이유를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많은 연구들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상황에서 아니라 다소 인위적인 과제 수행 상황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과제 수행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놀이

상황에서나 일상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것 보다 더 지시적이고 통제적인 의도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과제 수행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머니 행동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사회화 및 전반적 양육행동들과 같이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Karreman와 동료들(2006)이 지적한 대로 자기 조절에 대한 정의에 따라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 조절을 자율적행동 및 정서 조절로 정의한 경우, 부모의 행동은 아동의 조절과 별 관련이 없었으나, 어떤 요구에 순응하는 행동을 자기 조절로 본 경우에는 영향력이 유의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의 자기 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조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정서와 부모의 대응반응에 대한 첫 번째 논의에 이어 두 번째로, 부모의 반응 중 격려의 매개 효과검증 결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이는 정서에 대응하는 부모의 반응에 따라 과제 수행을 지속하거나 잘 진행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우선, 아동의 정서는 자기 조절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웃음과 중립 반응은 자기 조절에 정적 영향력을, 아동의 부적 정서가 부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 대응 반응의 매개효과는 크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6개 유형 중 격려는 아동의 정서 중에서 슬픔과만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지만 자기 조절에 대한 매개효과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리어 수행시간과 격려를 통제하였을 때, 슬픔과 자기 조절간의 관계가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아동의 슬픔에 대해 격려를 제공하든지 하지 않든지, 슬픔 반응 자체가

자기 조절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격려는 본 연구에서 아동의 정서에 공감하거나 위로를 주는 반응으로 정의되었다. Eisenberg와 Fabes(1994)는 아동이 슬픔, 화 등 부적 정서를 경험할 때 위로하는 부모의 정서중심 반응이 분노 조절과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하였으며, Gottman 등(1996)도 문제 해결을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적 정서에 대해 위로하는 부모의 반응을 해체 반응이라고 하여 정서 능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메타분석에서도 아동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모의 반응성이 자기 조절과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들은 문제해결이 요구되는 과제 수행 상황에서 격려가 슬픔과 자기조절을 매개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한다. 그러나 격려가 자기 조절에 미치는 직접 영향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격려를 많이 할수록 정서 조절이 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아마 수행 시간에 대한 것이다.

수행시간은 분석결과 변인들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 시간이 길수록 아동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화나 슬픔의 정서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낸다. 이와 관련해 자기 조절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또한 수행 시간이 길수록 어머니들이 행동도 많이 나타나게 된다. 5분간 어머니가 보인 행동보다 20분간 보인 행동은 그 빈도에서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행시간을 통제변인으로 그 영향력을 제거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행시간을 통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행시간을 제한하여 그 시간 이내의 행동만을 분석하는 법, 혹은 빈도나 점수를 전체 시간단위로 나누는 법 등이 있다. 그러나 상황적 타당성이 저하되고 행동의 빈도가 낮은 경우 단위로 나누는 것

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격려와 자기조절관의 관계에 대해 후속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둘 간의 관계가 선형상관계수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시간적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소요 시간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눈 결과 평균 정도의 수행시간을 소요한 집단에서 격려와 자기조절간의 관계는 부적이 아닌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수행시간이 평균 이상 오래 걸린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고 격려와 자기 조절 간에 상관은 부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되어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부모가 격려를 해도 아동이 과제수행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기능을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어머니의 격려가 수행의 어느 시점까지는 자기 조절에 정적 영향을 주고 그 이후에는 영향력이 없으므로 시간의 영향력이나 매개 효과는 차후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행 시간이 매개 변인으로 정의된 어머니의 대응반응의 또 다른 매개 변인(mediator), 아니면 어머니의 대응반응과 상호작용하는 변인(moderator)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적인 구조화 모델로 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반응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차후 검증력의 측면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인지능력이나 난이도의 지각, 쓰기 경험에 대한 개인차 등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이 지각하는 과제 난이도에 따라 정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평가와 조절 과정이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 수행시간을 통제하거나 부모-자녀 간 양방향 상호작용을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

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성희용, 방희정, 이순행(2005). 문제해결 상황에서 어머니 행동특성과 애착안정성이 유아의 행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8(2), 57-74.
- 송하나(2006). 가족의 인구학적 변인과 아동의 정서적 반응이 부모의 정서 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지*, 44(1), 75-85.
- 안주혜, 최경숙(1989). 외적언어 및 과제 난이도가 아동의 자기조절 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1), 32-43.
- 유은희, 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이정란, 양옥승(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요인에 관한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90.
- 하지영, 박성연(2005).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 행동 및 보육경험이 아동의 불순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2), 55-74.
- Bretherton, I., Fritz, J., Zahn-Waxler, C., & Rigeway, D. (1986). Learning to talk about emotions: A functionalist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7, 529-548.
- Cicirelli, V. G. (1976). Mother-child and sibling-sibling interactions on a problem-solving task. *Child Development*, 47, 588-596.
- Clark, L. A., Kochanska, G., Ready, R. (2000). Mothers personality and its interactions with child temperament as predictors of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79(2), 74-285.
- Dixon, S. D., LeVine, R. A., Richman, A., & Brazelton, T. B. (1984). mother-child interaction around a teaching task: an African-American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5, 1252-1264.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Murphy, B. C., Guthrie, I. K., Jones, S., Friedman, J., Poulin, R., & Maszk, P. (1997). Contemporaneous and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from regulation and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68(4), 642-664.
- Freund, L. S. (1990). Maternal regulation of children's problem-solving behavior and its impact on children's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1, 113-126.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243-268.
- Karreman, A., van Yuijl, C., van Aken, M. A. G., & Dekovic, M. (2006). Parenting and self-regulation in preschoolers: a meta-analysi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 561-579.
- Keller, H., Yovsi, R., Borke, J., Kartner, J., Jensen, H., & Papaligoura, Z. (2004).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early parenting experiences: self-recognition and self-regulation in three cultural communities. *Child Development*, 75(6), 1745-1760.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chanska, G., Aksan, N., Prisco, T. R., & Adams, E. E. (2008). mother-child and father-child mutually responsive orientation in the first 2 years and children's outcomes at preschool age: mechanism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79(1), 30-44.
- Kochanska, G., Murray, K., Jacques, T. Y., Koenig, A. L., & Vandergeest, K. A. (1996). Inhibitory control in young children and its role in emerging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7, 490-507.
- Koenig, A. L., Cicchetti, D., Rogosch, F. A. (2000). Child compliance/noncompliance and maternal contributors to internalization in maltreating and nonmaltreating dyads. *Child Development*, 71(4), 1018-1032.
- Kopp, C. B. (1982). Antecedent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99-214.
- Lewis, M., & Saarni, C. (1985). Culture and emotions. In M. Lewis & C. Saarni(Eds.),

-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 (pp.1- 17).
New York: Plenum Press.
- Martini, T. S., Root, C., & Jenkins, J. (2004).
low and middle income mothers'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and situational emotional
responses. *Social Development, 13*(4),
515-530.
- Mulvaney, M. K., McCartney, K., Bub, K. L., &
Marshall, N. L.(2006). Determinants of
dyadic scaffolding and cognitive outcomes in
first grader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4), 297-317.
- Nader-Grosbois, N., Normandeau, S., & Quintal,
G. (2008). Mother's, father's regulation and
children's self regulation in a
computer-mediated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113*(1),
95-115.
- Neizel, C., & Stright, A. D. (2004). Parenting
behaviors during child problem solving: the
roles of child temperament, mother education
and personality, and the problem-solving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2), 166-179.
- Prinzie, P., Onghena, P., Hellinckx, W., Grietens,
H., Ghesquiere, P., & Colpin, H. (2004).
Parent and chil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s predictors of negative discipline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in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8, 73-102.
- Shipman, K., & Zeman, J. (2001). Socialization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dyads: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 317-336.
- Winsler, A., Diaz, R. M., McCarthy, E. M.,
Atencio, D. J., & Chabay, L. A. (1999).
Mother-child interaction, private speech, and
task performance in preschool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40*(6) 891-904.
-

1차 원고 접수: 2009. 04. 15.

수정 원고 접수: 2009. 05. 12.

최종게재결정: 2009. 05. 12.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emotion, mothers' reactions to the children's emotion,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in a dictation task situation

Hana Song Kyoungsook Choi

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 and mothers' reactions to these emotion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others' reactions to these relations. Sixty two children at age 6 and their mothers who lives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Children's and mothers's interactive behaviors during a dictation task performance were videotaped and analyzed in terms of children's emotion(smile, sadness, anger, neutral) and self-regulation, and mothers' directive control, intrusiveness, encouragement, helping behavior, ignoring, and positive emotion expression to children. The effect of children's time to complete the task were controlled through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echniqu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emotion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ertain types of mothers' reactions. For example, mothers showed positive emotions more frequently in response to the children's smiling. In addition, children's self-regulation were significantly predicted by children's smiling and neutral reactions, and especially by mothers' encouragement. But, the mediating effect of the mothers' encouragement was not significant. Discussion was made on the basis of children's socialization by mothers, and the effects of mothers' scaffolding on the children's problem solving.

Key words: Problem solving task, children's self-regulation,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emotions, Scaffolding